

완주군, 국민행복민원실 ‘우수’

민원제도개선 등 불편사항 지속 발굴 도내 최초 정부 인증 우수기관 선정

완주군이 도내 최초로 정부에서 인증하는 2016년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4일 열린 제7회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강원도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에서 개최된 행사는 전국 민원담당공무원 800여명이 참석했으며, 완주군이 우수기관으로 수상됐다.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은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 전환에 따라 지역민원의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한 민원접근성, 민원서비스 운영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총 3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완주군은 군민중심의 품격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제도개선, 민원시책 등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해오며, 도내 최초로 정부의 공식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주민이 참여하는 '민원안내도우미 자원봉사자' 운영을 통해 방문 민원인의 손과 발이 돼 부서안내 및 민원 불편사항을 도와 군민 감동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또한 지역내 '건축사'와 '공인중개사'가 매주 수요일 저소득층 대상의 무료건축설계서 작성과 매매계약서 작성 등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작은 친절이 고객을 감

동시킨다는 신념'으로 매주 월요일 일과 시작 20분 전 공직자 친절실천 다짐 친절 체험도를 높이고 있다.

이 밖에 군 청사와 가장 가까운 주차공간 51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장소'로 제공하는 한편, 일어서서 응대하는 눈높이 민원처리를 위해 '스텐 덤오퍼스' 근무환경으로 탈바꿈시켜 대민 서비스 제고 및 업무 능률의 향상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민원6기 이후 군정핵심 키워드인 소통, 변화, 열정의 실천과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한 민원 서비스 품질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다함께 열어나가 으뜸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헌집 다오 새집 줄게'

무주군, 저소득층 노후주택 101동 개보수 완료

무주군이 2016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101동으로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 물량보다 13동이 추가된 것으로 적극적인 현장 확인과 관리가 뒷받침된 성과로 꼽히고 있다.

주민들은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낡은 집을 고쳐 다행"이라며 "겨울은 외풍격정에 여름엔 비새는 걱정까지 많았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전했다.

복귀기금과 군비로 추진되는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가구의 지붕 개량과 벽체 보수 및 보강, 부엌 개조(입식), 수세식 화장실 및 보일러 설치, 창호를 교체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

으로 무주군은 올해 총 사업비 3억 5천 2백만 원을 투입(가구 당 4백만 원 한도 내)해 사업을 완료했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김한수 건축담당은 "무주군에서는 시공 전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가 개보수가 시급한 부분을 일일이 조사하고 의견을 청취해 거주자 중심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있다"며 "내년도 사업물량도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182동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182동 개보수를 위해 사업비 7억 2천 8백여만 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깨끗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투입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립돌리소

장수군, 생활민원 서비스 강화

장수군(군수 최용득)은 동절기를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중점으로 군민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2016년 찾아가는 생활민원 서비스'를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군은 취약계층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3명을 지정 생활 민원팀을 운영해 ▲보일러 등가방지 부동여주임 ▲보일러 점검 ▲누전기 차단 작동여부, 노후배선 전동교체 ▲시민 생활 불편 해소 등과 세부과제 이행을 통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생활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해결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문의 전화는 063)351-8282로 연락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 계북 종합복지회관 준공

장수군은 24일 주민자치위원 및 유관기관 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계북면 종합복지회관은 총사업비 14억 원을 투입, 2016년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해, 연면적 660㎡ 지상2층 규모로 완공했다. 1층은 작은 도서관, 헬스장, 서예·문예실이 건립되고, 2층에는 소회의실, 다목적실 등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는 공간이 조성됐다.

이 복지회관은 주민의 문화공간과 각종 행사 장소로서 지역 주민의 생활방역 역할을 톡톡히 하며, 다양한 여가 선행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용득 군수는 "계북면 종합복지회관 준공으로 주민복지를 위한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돼 면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화합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부진지표 추진상황 실적보고회

장수군은 24일 김윤섭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및 실무담당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16년실적)지자체 합동평가'를 대비해 10월말 기준 실적향상을 위한 합동평가 추진상황 실적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실적보고회에서는 9개분야 136개 정량지표 중 부진 지표에 대한 추진현황과 부진사유, 급후 대책 등을 해당 부서장이 보고하고, 분야별 지표의 분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표등급을 향상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시간을 가졌다.

김윤섭 부군수는 "지자체 합동평가는 지자체의 '16년 추진실적을 평가·환류함으로써 국정과 지방행정의 통합성·효율성·책임성 확보로, 주요시책사업 등을 평가지표에 면밀하게 분석 반영해 2016년 실적향상뿐만 아니라, 2017년 이후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표관리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실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진장소방서, 장수 산서중·고 학생 대상 소방관체험교실 운영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24일 장수군 산서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소방관체험교실을 운영하였다.

이번 체험교실은 자유학기제에 따라 소방관 체험을 위하여 산서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안전은 우리가 지키자!"라는 주제로 화재발생대응요령,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기도폐쇄응급처치법등 실제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 발생 사례위주로 실시했다.

특히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은 소방공무원의 업무와 채용과정을 설명하고 방화복 체험과 연기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화재진압 체험등을 통해 소방관에 대한 직업을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조용주 서장은 "가장 존경하는 직업으로 3년 연속 1위를 한 소방공무원 진로·직업 탐색 미래소방관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 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임의 변경”

무주군의회 이한승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내 모노레일 설치사업과 날뿔축제 기획사 선정에 있어 부실한 업무추진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의 최초 설계시에는 향로산 일원에 10억원으로 데크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임의대로 21억원 규모의 모노레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향로산 활



이한승 무주군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공장에 설치하는 질외어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모노레일과 질외어와의 동선도 동떨어져 있고 심지어 조잡한 시설 설치로 인해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도 무리가 따르며 군민을 생각하지 않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306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만큼 군민의 열세가 남비되지 않도록 건물과 시설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청정무주의 이미지에 걸맞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20회를 맞은 날뿔축제 전반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제언을 했는데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잡은 '김제 지평선축제', '예천 세계군충엑스포'를 예로 들며, ▲주말 관광객에 초점을 맞춰 축제기간을 짧게 조정해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최대한 줄일 것 ▲식당 없는 축제장 조성으로 인근 상권 활성화할 것 ▲환경축제로서의 정체성을 재검토할 것 ▲축제 기획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원에서 빛어낸 천년 푸른빛, 진안청자’ 전시 27일 막 내리

진안청자 조명 계기 마련

진안역사박물관과 국립전주박물관(관장 김승희), 군산대학교박물관(관장 박광근)이 공동으로 개최하여 진안역사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특별전 '고원에서 빛어낸 천년 푸른빛, 진안청자' 전시가 오는 27일(일) 막을 내린다.

이번 특별전은 최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초기청자 가마터로 주목되고 있는 진안 도토리 중령 청자가마터 발굴조사 성과를 종합하고 널리 알리

기 위해 지난 9월 27일부터 2개월간 운영되었으며, 9월 30일에는 '진안 도토리 중령 청자가마터 조사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전시는 군민과 지역의 학생층, 관광객 등 총 2,500여명의 관람객이 관람하였으며 전시를 통해 진안의 청자문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10~11세기 처음 청자를 만들던 시기 진안과 우리나라 초기청자의 맛을 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전시 기간 중 진안역사박물관에서는

‘교사와 함께하는 전시읽기’ 청자문화 답사’ 청자 이미지로 꾸민 예코백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관람층이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진안역사박물관은 오는 11월 27일 전시 종료로 앞두고 보다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하여 군민과 관람객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특별전을 지속해서 기획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민 기자

진안군, 28일 문화공연

진안군은 11월 문화가 있는 주간에 맞아 오는 28일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한 만돌린오케스트라 연주회'와 '아카펠라 그룹 보이처의 가족하모니 콘서트'를 개최한다.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한 만돌린오케스트라 연주회'는 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공연으로 노인복지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1부에서는 친구여, 철밀밭, 황성옛터 등 어르신들이 좋아할만한 곡들을 전주만돌린오케스트라 연주단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으며, 2부에는 오케스트라 연주에 가수 공연이 진행되어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전주만돌린오케스트라는 2004년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요양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찾아서 만돌린오케스트라 연주회로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번공연은 노인복지관 어르신뿐만 아니라 관람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와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진안=우태민 기자



무주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교육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지회장 이광부)는 24일 지회 회의실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112명의 활동교육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지회장은 어르신들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노인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한 시대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인의 위상을 높이자고 전하였으며 무주보건의료원 협력으로 참여 어르신의 기초건강검진, 치매예방과 노인사생센터장 이정은 강사의 사례를 통한 노인성질환의 강사와 함께

권은성 노인취업센터장의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향 논의 및 의견 제시로 사업성과의 간담회로 진행되었다.

무주군지회 노인취업센터는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일자리 창출, 교육, 취업 연계 등 노인 인적자원 전방위 사업으로 노인의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성취감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운영 지원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냉이 첫 출하... 4kg당 1만원~1만2천원

무주냉이가 지난 23일 첫 출하했다. 현재 부남면과 안성면의 20농가에서 냉이를 재배하고 있다.

무주냉이 첫 출하... 4kg당 1만원~1만2천원

무주냉이가 지난 23일 첫 출하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거래 가격은 4kg당 1만 원~1만 2천 원으로 농한기 새로운 소득원이 될 전망이다.

냉이농사는 무주군이 농업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기후를 활용할 수 있는 재배단지를 조성하며 올해 처음 짓기 시작한 것으로 현재 부남면과 안성면의 20농가에서 냉이를 재배하고 있다.

이제 막 수확을 시작한 무주냉이는 11월 말에 본격 출하될 예정으로, 무주군은 4ha 규모에서 내년 3월까지 총 72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신상범 소독작목 담당은 "9월에 심은 냉이가 수확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소득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 만큼 고령, 영세농들에게도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냉이는 내한성 작물로 재배법이 까다롭지 않고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재배에 관심을 가지는 농가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이동식하우스와 관수시설, 기타 자재 등을 지원하며 고령기후 재배 면적을 차츰 확대해 지역특화 소득작목으로 냉이를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